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지사가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란 슬로건으로 시군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무주군을 찾아 무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황인홍 군수와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주, 전북자치도 새 시작의 핵심”

김관영 도지사,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 무주군민과 대화의 장 가져
구천동 33경 명소화·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 자연특별시 무주 발전 지원책 제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생을 듣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품고 지난 14일 무주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무주군민과 만났다. 무주군 생활체육대추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 3위 입상)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무주군민과의 대화'에는 민생으로 한 걸음, 행복으로 만 걸음이라는 주제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전북자치도위원을 비롯한 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환영사를 통해 "귀한 걸음으로 무주 방문의 해를 빛내주시는 지사님을 2만 3,000여 무주군민의 이름으로 환영한다"라며 말문을 연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를 향한 지사님의 응원과 지원이 '자연특별시 무주, 태권도성지 무주,

전북자치도의 중심 무주를 만드는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주가 가진 자연환경과 태권도, 그리고 문화관광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북의 얼굴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귀농인, 태권도인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들은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과 △태권도를 통해 세계인이 찾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 등을 건의했다. 또 △무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야간관광콘텐츠를 확충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주반딧별시장(무주읍 소재)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계획도 밝혀 이목을 집중

시켰다. 김관영 도지사는 "시군 역량을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전북자치도 정착과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무주군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토대라는 생각으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시작, 특별한 계획의 핵심이 바로 '무주군'이라고 강조한 김 지사는 자연특별시 무주군 발전을 위해 △무주구천동 33경 명소화사업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산림복지단지 조성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외에도 △중부 내륙 고속도로 및 철도망 구축, △무주 태권시터 조성 △동부권 발전사업 △공립 요양병원 건립 등을 지원책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 관련 특례는 '친환경 산악관광 진흥지구 특례(제50조~62조)'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제61조)', '야간관광산업 육성(제50조)' 등으로 산악관광 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복지 증진 및 생활인구 확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태권도 지킴이와 또리·아로(무주반딧별축제 캐릭터), 태권도시범단, 알파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단, 무주군 생활체육대추전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출전해 전국 3위 입상) 등 무주군민의 환영을 받으며 무주군에 도착했던 김관영 지사는 '무주군민과의 대화' 시작 전 무주군의회 의원들과 무주군 주재 기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무주군민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는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으며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수용하고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로 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중처법 시행 후 5명 사망... 법원, 세아베스틸 대표 구속영장 기각

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군사지원 김민석 판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

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이

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우려가 없다고 봤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5월4일 청강제품을 적제 한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어 1명이 사

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 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김제 금산사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부처님오신날인 15일 김제시 금산사에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불기 258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렸다. 이번 봉축 법요식은 개식을 알리는 명중부터 시작해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낭독, 찬불가 합창, 헌화 및 관불, 축사, 축가,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금산사 일원 주지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에겐 참회의 눈을 뜨게해 자기를 낮추는 하심의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며 "절망은 희망으로,

갈등은 화합으로, 불신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밝은 공동체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자치도는 부처님오신날을 밝히는 연등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따뜻한 등불이 되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도민이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봉축 법요식 이후엔 찾아온 방문객들을 위한 점심공양 등이 진행됐으며, 오후 7시에는 저녁예불과 함께 연등 점등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기자

도내 안전사고 예방 만전

김관영 도지사, 무주 남대천 별빛다리 현장 안전점검

황인홍 군수와 동행... 공무원 운전 드론 시범 참여도

최근 전북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경각심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4일 무주 시·군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남대천 별빛다리를 찾아 직접 현장 안전점검을 했다. 이날 점검은 황인홍 무주군수도 동행해서 현장을 돌아봤다. 남대천 별빛 다리는 총길이 133m, 폭 2m인 보도교로 지난 2023년 6월 완공됐다. 이 다리는 경관 조성으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야간명소 중 하나로, 시설 점검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집중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무주군으로부터 별빛 다리 건축 경과를 보고받은 뒤,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드론 카메라를 통해 다리 하부와 주탑, 케이블 등을 보면서 사각지대 없이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토목 분야와 전기분야 민간 전문가가 사진 점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다리 난간 등 안전시설과 다리 쉼터 조명 전기장치 등을 직접 확인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로·교량·터널,

급경사지 등 1,53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중 어린이 이용시설 79개소와 주민신청시설 67개소는 중점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공무원 드론 운전 점검은 팀별 벤치마킹으로 발굴한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근무 중인 방재안전직 7명 모두가 드론운용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난상황이나 안전점검시 드론을 적극 활용하는 사업이다. 평소 무엇보다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안전은 우연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라며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선제적이고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예방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지난 2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살핀 바 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 개축 공사현장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일 가스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았을 당시 김 지사는 서울에서 전북서 울장학숙 3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 중이었으나, 사고 소식을 듣고 이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